

“잘 들리나요~” 마음속 부처님, 노랫말로 가까워져요

제28회 전국 어린이·청소년 연꽃노래잔치



어린이·연꽃노래잔치 중창부문에 참가한 부산 흥법사 어린이 합창단이 '꿈 찾아 가리리'를 울동과 함께 부르고 있다.

5살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10여개 사찰서 200명 참여
제주 우담바라합창단 대상

명예회장 범현 스님은 경연에 앞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음악을 한다는 말이 있다. 오늘 대회에 참가한 여러분도 공부를 잘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음율로 표현한 것이 ‘게송’이고, 이 게송으로 이뤄진 경전이 <법구경>이다. 여러분이 부를 노래도 게송처럼 부처님 가르침을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우리 절 부처님은 마음씨가 좋아요, 마음속 찌든 때 깨끗이 씻기고~”

잡티 하나 없이 맑디맑은 천진불들의 노랫말이 어린이들의 가슴에 꼭 박혔다. 해맑은 얼굴과 때 묻지 않은 목소리는 오락악세마저 정화시킬 듯 맑고 또 고왔다.

4월 23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8회 전국 어린이·청소년 연꽃노래잔치’가 열렸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가 주최하고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천진불들의 신심을 다지고, 그간 갈고 닦은 노래실력을 뽐내는 축제의 장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0여개 사찰 및 어린이집에서 2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의 떨리는 마음 때문인지 적막해진 공연장에 양 갈래로 머리를 뺀 꼬마아이가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섰다.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유치부 네이처힐어린이집 최서진(5) 어린이다. 대회 참가자를 통틀어 최연소인 최서진 양은 ‘부처님이 좋아요’를 부르며 관객들의 미소를 이끌어냈다. 어린 친동생 혹은 딸내미 같은 귀여운 독창에 목격한 공연장 분위기가 이내 부드러워졌다.

유치부 독창이 끝나고 저학년 무대가 이어졌다. 유치부에 비해 발음도 제법 정확해졌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감정도 실렸다. 고학년들은 고음도 짙게 뽐내면서 각자의 매력을 한껏 발산했다. 중창과 합창 부문은 여러 명이 참여하는 만큼 다양한 울동이 가미돼 보는 즐거움까지 안겨줬다.

다. 특히 밝은 분위기의 찬불동요가 주를 이룬 대회에 심금을 울리는 노래가 선보여 감동을 선사했다. 국제선센터 바라밀 어린이합창단은 찬불가 ‘마메소리’를 불러 관객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성인합창단과는 다른 아이들의 고운 목소리가 한 데 어우러져 장엄하게 표현됐다.

경연 이후에는 올해 연동회 울동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다. 곡명은 ‘웃으면서 살아갈래요’. 사회자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자 공연장은 금세 유명 아이돌 콘서트를 방불케 했다. 소박한 선물 하나 받기 위해 소리 지르고, 레크리에이션에 자지러지는 모습은 영락없는 어린이다.

이날 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팀은 제주불교 우담바라 어린이합창단. 아침 첫 비행기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온 보람이 있었다. 우담바라 합창단

은 ‘공심공체 돌이 아닌 노래’와 ‘선물보따리’를 불렀다.

이종만 심사위원장은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뽐내줘 고맙다. 특히 중창과 합창은 구성원 모두 마음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잘 소화했다”며 “제주나 부산 등 각지에서 참여한 열정이 돋보였고, 예년에 비해 실력도 많이 좋아졌다”고 심사평 했다.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유치부 최서영 양(구룡유치원)·저학년 황재우 양(국제선센터)·고학년 전예린 양(진관사)·중창 봉은사·합창 흥법사 동명 어린이합창단이 수상했다.

우담바라 합창단 회장 유예현(13) 양은 “얼마 전 열린 제주불교연합합창제에서도 1등 했는데 오늘도 대상을 받게 돼 기분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단장 제용 스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연습하면서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좋은 무대를 선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큰 상은 한정돼 있기에 모두 받을 수는 없었지만 대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즐거운 기억도 들을 수 있었다.

‘가름빈가’를 부른 이재원(14) 군은 “좋은 상을 받지 못한 건 아쉽지만 노래 연습을 하면서 절에 자주 나오게 되고 스님들과 친해질 수 있어 좋았다”고 강조했다.

국제선센터 김주남 지휘자는 “짧은 시간 안에 합창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불교적이면서도 신심이 일어날 수 있는 노래를 접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대상을 수상한 제주불교 우담바라 어린이합창단은 ‘공심공체 돌이 아닌 노래’와 ‘선물보따리’ 등을 음성공양 했다.



대회 최연소 참가자인 네이처힐어린이집 최서진 양.



제28회 전국 어린이·청소년 연꽃노래잔치에 참가한 전 참가자와 내빈들이 환하게 웃으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석가를 품은 53見 가슴을 치는 화두집이 드디어 출판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문중인
독각~진귀 존자의
화엄경 참구와 만경(萬境)이 둘이
아닌 선(禪) 삼매문을 통한
선교일승(禪教一乘)의 평온한
안목으로 쓴 화두집(석가를 품은 53見)
드디어 출판되다!

· 이렇게 괴짜스럽고 이렇게 부사의 하고 희유한 안목으로 이렇게 신선한 생기(生氣)와 묘(妙)한 장엄이 감도는 ~ 화두집은 부처님 경전 외엔 느껴 본적이 없었다

- 법화수행원 원일스님

· 이 화두집은 시원한 사이다를 마시는 느낌이다 ... 위광거사

☎ 도서출판 왕산
문의 1899-9532
ISBN 979-11-87004-05-9 값 30,000원

※ 붓다북 등 인터넷 및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석가를 품은 53見 목차

제1見 석가를 품다	제19見 참새집	제37見 자식인연
제2見 평은 초대장	제20見 병(病)든 부처	제38見 형제 인연
제3見 법(法)을 버리다	제21見 생화와 조화	제39見 도반인연
제4見 차 한 잔	제22見 직거래?	제40見 부부인연
제5見 해인 삼매	제23見 묘혜(妙慧)	제41見 대방광불 회암경..
제6見 창조와 표절	제24見 법은 무의(無依)다	제42見 왕(대통령)
제7見 아부선사 웃다	제25見 천도(遷度)란?	제43見 독각(獨覺)은?
제8見 요지경	제26見 고구마 부처?	제44見 <나>
제9見 말 많은 석가?	제27見 마음속 부처	제45見 대도(大道)란?
제10見 히말라야 영화	제28見 개나리는 노랑다	제46見 부처님 오신날
제11見 동시구족	제29見 범부와 선지식	제47見 신통력(神通力)
제12見 법맥?	제30見 깨달음의 신호등	제48見 보시(기부)
제13見 부처와 하룻밤을?	제31見 다음생	제49見 정견(正見)을 치다
제14見 윈드서핑	제32見 종(鐘)	제50見 업(욕심의 흐름)
제15見 발효식품	제33見 스승을 찾아서	제51見 평온을 만나다
제16見 한 맛	제34見 대자유인의 길	제52見 회암경_7偈詩
제17見 뒤바뀐 안목	제35見 집착을 놓다	제53見 평은 축제
제18見 평온한 남자	제36見 종교와 현실	

